

천태종 중국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식 취재기

시공넘어 천태법맥이었으니...

중국 절강성 천태산에서 한국 천태종의 법맥이 명실상부하게 복원되던 6월17일, '韓中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법요식(본지 32호 참조)이 거행되는 동안 잠엄한 隋代의 고풍 隋寺는 비에 젖었다. 그러나 법요식에 참석한 한국불자 2백 50여명과 중국불교계 인사, 일본학객, 천태현 신도등 1천 1백여 사부대중은 국적을 초월하여 오직 부처님 제자로 합장했다. 그리고 천태사상이 오늘 이시대에 새롭게 피어나길 바랐다.

평소 묵언수행하듯 과묵한 천태종 종정 道瑛스님은 부처님께 이렇게 봉공문을 올렸다.

"천태종 근본성지 국청사 도량에 조사당을 세우고 개산조 천태 지자(智者)대사, 고려 대각국사, 한국 천태종 종창조 상월조사의 존상(尊像)을 봉안하게 된 것은 불보살이 찬탄할 뜻깊은 불사이므로 한중 불교교류의 일대전기로 삼아 천태 입승묘법의 위신력을 신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박초 중국불교 협회장은 수석부회장 명량 법사가 대독한 처사를 통해 "한중 천태법승들의 우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국청사 가명(可明)방장은 환영사에서 '상월대사의 위업이 천태 6조의 공덕과 같다고 인식돼 불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불사를 합의하고 추진하느라 중국을 8번이나 오가며



◇천태종은 지난 17일 중국 국청사에서 「중한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식과 아울러 지자 대사(중앙) 대각국사(오른쪽) 상월조사(왼쪽) 청동좌상을 봉안, 법맥을 복원하고 법통의 뿌리를 내렸다.

1천5백 사부대중 국적초월 합장

지자·대각·상월존상 봉안 "종통 바로 세운 대불사"

작업을 마무리한 전문역 총무원장스님은 감격에 찬 어조로 기원사를 했다.

"이제 한국 천태종의 법맥이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정법인연으로 받아들여 그 역사적 몫을 다하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이기영, 이재창, 권기중, 이영자교수 등 동국대학교 원로 중진 불교학자들의 참석은 이날의 낙성 법요식을 더욱 빛냈다. 불교방송 강현필사장도 함께 했다.

이기영 박사는 축사에서 천

태종이 서기 594년 창종된 이래 신라의 스님들과 일본스님들이 국청사에서 천태학을 배워간 역사를 되새기면서 "오늘을 계기로 천태종이 다시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상해주재 박종선 한국영사, 일본 천태종 연력사 쓰쿠미법사, 신재부 중국불교협 부비서장, 절강성 불교협 수석 부회장은 이번 불사를 기리는 축사를 했다.

현판식이 시작될 무렵 비는 멈추었다. 붉은 편액에 선명한

황금색글씨 '韓中 天台宗 祖師 紀念堂'은 조박초 회장이 썼다. 이어 천태 지자를 중심으로 대각국사, 상월조사의 청동 좌상이 점안됐다. 도용 종정스님은 지극하게 절을 올렸다. 조선조이후 끊어진 법맥을 증창30년만에 복원하여 뿌리를

사비를 부담하여 70여평의 목조건물로 세워진 조사당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즉 뿌리를 찾는 한국 천태종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한중불교교류의 새 장을 연 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절강성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법요식에 동참한 한국 중국 일본 등 1천5백여 천태종도들은 이를 계기로 한중 우의를 다져나갈 것을 발원했다.

장 월주스님, 주돈식 문체부장관, 서석재 총무처장관, 신경식 의원, 황병태 주중대사 등이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

천태종은 조사당 낙성기념특집으로 <천태산과 한국의 천태종>을 펴냈다.

목봉사 등을 참배하고 백두산에서 통일법회를 가진 후 도문, 연길, 용정, 북경을 거쳐 25일 귀국했다.

중국 절강성=최정희 국장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지구촌 전법이야기

송산 스님 ④

68년부터 홍콩에 절을 짓기 시작했다. 절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법(法)의 자리를 짓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행원스님은 일본에서의 포교활동으로 해외 포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법의 길이 있다." 행원스님은 세상 어디든지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란 확신을 갖고 홍콩에 새로운 전법의 터를 닦게 된 것이다. 이미 홍콩에 머물고 있던 세진스님과 성희스님 등이 많은 도움을 줬다.

홍콩 흥법원 설립은 2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했다. 행원스님이 홍콩 현지에서 줄곧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님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또 대규모 법회에 참석해야 했다. 현지의 스님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2년만에 문을 열게 된 홍콩 흥법원은 청하스님(현, 통도사부방장)에게 일임했다.

의 외모때문은 아니었다. 비행기에 올라 앉는 순간부터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다는 듯이 힐끗힐끗 스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을 지났다. 그는 무슨 결심을 했다는 듯 스님에게 인사를 청해 왔다.

"스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별염의가 말이나 되겠소." "아, 네, 그렇군요." 행원스님은 저기 놀라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국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내는 매우 영성한 한국말이었고 그것도 경남도 억양이 강했다.

"경남도 말투이신데 한국인이십니까."



◇홍콩 흥법원 설립의 주역들. 좌로부터 성희, 금산, 세진, 송산스님. 이 사진은 일본 흥법원에서 찍은 것이다.

"사람사는 곳 어디나 전법 현장"

2년만에 홍콩 흥법원 세우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

청하스님은 찾아 드는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며 신도를 확보해 나갔다.

홍콩에 흥법원을 세우는 일로 분주한 가운데 행원스님은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을 결심했다. 동경에서 만난 사업가 유영수씨가 "스님, 미국에 가십시오. 미국에서도 포교해야 하십니다"라며 사투 매달렸던 것이다.

"미국에 갈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일본과 홍콩이 정리되지 않아서 힘들겠어요..." 행원스님이 이렇게 미국행을 피할차일 미룬 것은 유영수씨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던지 72년 봄에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초청장과 비행기표가 동봉돼 있었다.

"그때 가서, 구경삼아 가서 석달쯤 있다가 돌아 오지 뭐."

행원스님은 동경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며 석달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으로 가게 된 바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곳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고 다짐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행원스님은 열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는 긴바리를 한 남자였는데 일본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인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차림새는 미국인에 가까웠다. 스님이 그에게 신경이 쓰인 것이 그

"에..." "어디에 사시는지." "미국에 삽니다."

스님은 스스로가 그에게서 어떤 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를 다녀 오십니까." "예, 스님, 저는 미국 보스턴 아래쪽의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이시군요." "동양역사 교수인데 공부를 하다보니 불교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석달을 머물며 공부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 사내가 힐끗힐끗 스님을 쳐다보며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조금진의 스님의 느낌은 이쯤에서 틀린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일본 대학들을 다니며 동양불교를 배웠습니다."

행원스님은 이 사내가 배운 불교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허, 교수님은 불교를 배운 것이 아니고 불교를 오해하고 가시는군요."

교수의 눈이 갑자기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교수의 눈이 갑자기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임연태 기자

조사기념당 낙성식 이모저모

대형 프랑카드 내걸어
○... '중한 천태종 조사 기념당' 낙성에 대한 중국측의 관심은 대단했다.

절강성 항주의 상그릴라 호텔에서는 '열렬 환영 한국 천태종 종정 김도용 예하 술하'라는 붉은색 대형 환영 프랑카드를 내걸었다.

또 지방정부에서는 한국대표단 차관을 예스코프하는 등 정중히 손님을 맞았다. 한국 천태종에서는 도용 종정스님의 첫 해외나들이이므로 행사 진행 대중인술에 신중했다.

구경나온 주민들 많아
○... 전형적인 시골마을을 걸갈

성 천태현에 외국인인 3백여 명이나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경나오는 주민들도 많았고, 민악을 대비해 경찰에 비상이 내릴 정도였다.

천태현 마을 "외국인 3백명 온 건 처음 있는 일"

비가 오는데도 낙성식을 보려는 인근 주민들이 많아 국청사는 행사 시작전에 출입문을 닫았다.

점심공양 야채 14종
○... 국청사에서 5백여 대중이 공양을 한 것도 처음있는 일여서 화제. 특히 오찬에 나온 야채음식은 무려 14가지.

○... 낙성식을 마친 후 한 중

양국 대표단 간부들을 기자와 자리를 함께 하여 국사방 운영 및 교류관계, 한 중 일 3국 천태종의 형제애를 나누는 건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천태산 참배행렬 '장사진'
○... 낙성식이 끝나면서 하

은 맑게 개이고 천태산은 더욱 푸르렀다. 한국측 대표단은 마이크로 버스로 '지자대사 육신탑' 참배에 나섰는데 천태산 오르는 차량행렬이 길게 꼬리를 이었다.

각계 화환·축전 담지
○... 조사당 낙성식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관심과 축하를 보냈다. 조계종 총무원

장 월주스님, 주돈식 문체부장관, 서석재 총무처장관, 신경식 의원, 황병태 주중대사 등이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

천태종은 조사당 낙성기념특집으로 <천태산과 한국의 천태종>을 펴냈다.

목봉사 등을 참배하고 백두산에서 통일법회를 가진 후 도문, 연길, 용정, 북경을 거쳐 25일 귀국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 놓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탕 같은 책이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전집은 문자 그대로 담의 무리에 섞여 있는 한 마리 학을 가려 읽은 책이다.

李御亭 (전 문화부장관)

존재와 무 II
세르르르
운명적

GREAT BOOKS OF THE WORLD

남권판에 서점에 있습니다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노예 중용 사서집주 3 맹자 대학 사서집주 4 노자 정치 5 시기연전 6 국가 소크라테스의 편민 7 정치학 사회 8 이슬람 사상 9 군주학 리바이어던 10 팔 세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방방사상/성철 외 13 통치론 자유론 14 순수이성비판 15 역사철학의 16 종의 기원 17 전쟁론 18 정신분석학 19 현대의 신화 아이엔티티 20 시간과 자유의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1 한국의 민족 종교사상 22 자살론 사회철학 23 사회경제사 24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25 역사의 연구 26 역사의 연구 27 과학의 근대세계 우연과 필연 28 건디 자서전 시인의 행복론 29 존재의 무 30 존재의 무 31 한국의 심학사상 32 불교의 정신분석의 초월 외 33 서민적 인간 부정 34 율령 연대 35 황금가지 36 황금가지